

# 동화로 듣는 우리나라의 효 이야기



## ② 말에게서 배운 부모의 은혜

활동유형	동화	활동수준	공통수준
활동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래동화를 듣고 ‘효’와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고 이해한다.</li> <li>전래동화를 듣고 극 놀이로 표현해본다.</li> </ul>		
교육과정 관련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생활영역-가족과 화목하게 지내기-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화목하게 지낸다.</li> <li>언어생활영역-문학 작품 즐겨 듣기-다양한 문학 작품을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한다.</li> </ul>		
활동자료 (CD에 수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화 그림 자료 PPT </li> </ul>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임금님      어머니      박장승</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당나라 사신      어미 말      새끼 말 여물동</p> </div> </div>		

### 활동내용 및 방법

- ▶ 우리나라의 전래동화 중에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내용의 동화에는 무엇이 있는지 자가 읽어본 동화에 대하여 이야기 나눈다.
  -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효도에 관련된 이야기가 전래동화로 많이 전해지고 있어요.
  - 내가 읽어 본 전래동화 중에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내용의 동화를 읽어본 적이 있나요?
  - 오늘은 전래동화 중에서 ‘말에게서 배운 부모의 은혜’라는 동화를 들어보도록 하자.
- ▶ ‘말에게서 배운 부모의 은혜’ 동화 내용을 들려준다.

▶ **동화 내용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눈다.**

- 고구려 때에는 늑거나 병든 사람을 어떻게 했을까? 그것을 뭐라고 부르나요?
- 박정승은 어머니를 어떻게 했나요?
- 당나라 사신은 박정승에게 어떤 지혜를 겨루어 보자고 청했나요?
- 박정승은 두 마리 말 중에서 어미와 새끼를 어떻게 구별하는 방법을 어떻게 알아 냈나요?
- 임금님은 기뻐서 박정승에게 상을 내리려고 할 때 박정승은 상을 사양하면서 임금님께 무슨 부탁을 했나요?
- 임금님은 박정승의 말을 듣고 고려장을 어떻게 했나요?
- 너희들이 만약 박정승이라면 늑으신 어머니를 어떻게 했을까?
- 부모님이 늑거나 병이 들었을 때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p><b>활동평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화 내용을 이해하는가?</li> <li>■ 박정승의 어머니에 대한 마음을 아는가?</li> </ul>
<p><b>확장활동</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화내용을 동극으로 표현하여 본다.</li> </ul>
<p><b>동화내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말에게서 배운 부모의 은혜</b></li> </ul> <p>고구려 때에는 늑거나 병든 사람을 산 속 동굴에 버리는 ‘고려장’ 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높은 벼슬을 하고 있던 박정승은 어머니를 무척이나 생각하는 효자였습니다. 박정승은 어머니를 버릴 때가 되었는데도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박정승은 어머니를 마루 밑에 숨겼어요.</p> <p>어머니 : 나라의 높은 벼슬에 있던 네가 나라 법을 지키지 않아서야 되겠니?</p> <p>박정승 : 아무 걱정 마시고, 여기 가만히 계세요. 아침저녁으로 문안인사를 드릴게요.</p> <p>그러던 어느 날 당나라의 사신이 찾아와 지혜를 겨루어 보자고 청했어요.</p> <p>당나라 사신 : 고구려 같은 나라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을 리가 없지.</p> <p>당나라의 사신은 고구려를 앞잡아보고는 그렇게 말했어요. 당나라 보다 힘이 약했던 고구려에서는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p> <p>당나라 사신은 똑같이 생긴 말 두 마리를 가지고 왔어요.</p>

당나라 사신 : 자, 이 두 마리 가운데 어느 것이 어미 말이고, 새끼 말인지 구별해 보시오. 대답할 시간은 앞으로 열흘 주겠소.

임금님은 걱정에 사로잡혔어요.

임금님 : 누구든 이 문제를 풀면 큰 상을 내리겠소!

박정승이 집으로 돌아오자, 박정승의 근심어린 얼굴을 보고 마루 밑에 있던 어머니가 물었어요.

어머니 : 애야, 무슨 걱정이라도 있느냐?

박정승은 당나라 사신이 내놓은 어려운 문제를 어머니께 이야기 했어요.

어머니는 빙그레 웃으시고는 어미 말과 새끼 말을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 주었어요. 이튿날 박정승은 당나라 사신을 궁궐로 불렀어요.

박정승은 먼저 당나라 사신에게 어느 말이 어미 말이고 새끼 말인지, 종이에 써서 손에 쥐고 있으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박정승은 하인을 시켜 말이 먹는 여물을 커다란 통에 가득 담아 말들 앞에 가져다 놓으라고 했어요. 그러자 한 마리는 대뜸 달려들어 먹는데 다른 한 마리는 먹지 않고 입맛만 다시고 있었어요.

당나라 사신 : 자아, 어서 말해보시오, 어느 것이 어미 말이고, 또 새끼 말이오?

당나라 사신의 얼굴에는 비웃는 듯 한 웃음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박정승 : 먼저 먹는 말이 새끼 말이고, 뒤에 먹는 말이 어미 말입니다.

순간 사신의 얼굴빛이 변했어요.

당나라 사신 : 고구려에는 지혜로운 사람이 많다더니 그 말이 맞구나!

사신은 놀라워하며, 손을 폈어요. 그 종이에 박정승이 한 말과 똑같이 적혀 있었어요. 임금님은 기뻐서 박정승에게 상을 내리려 하였어요. 하지만 박정승은 사양하며 말했어요.

박정승 : 저에게 이 지혜를 알려주신 분은 저의 어머니입니다. 저는 나라의 법을 어기면서 어머니를 마루 밑에 숨겨 두었습니다. 말도 저렇게 자기 새끼를 생각하는데 사람이야 어떠하겠습니까? 제발 고려장을 없애 주십시오.

그 말을 들은 임금님은 박정승의 말이 맞다고 생각해서 고려장을 없앴습니다. 그 후로 박정승과 어머니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